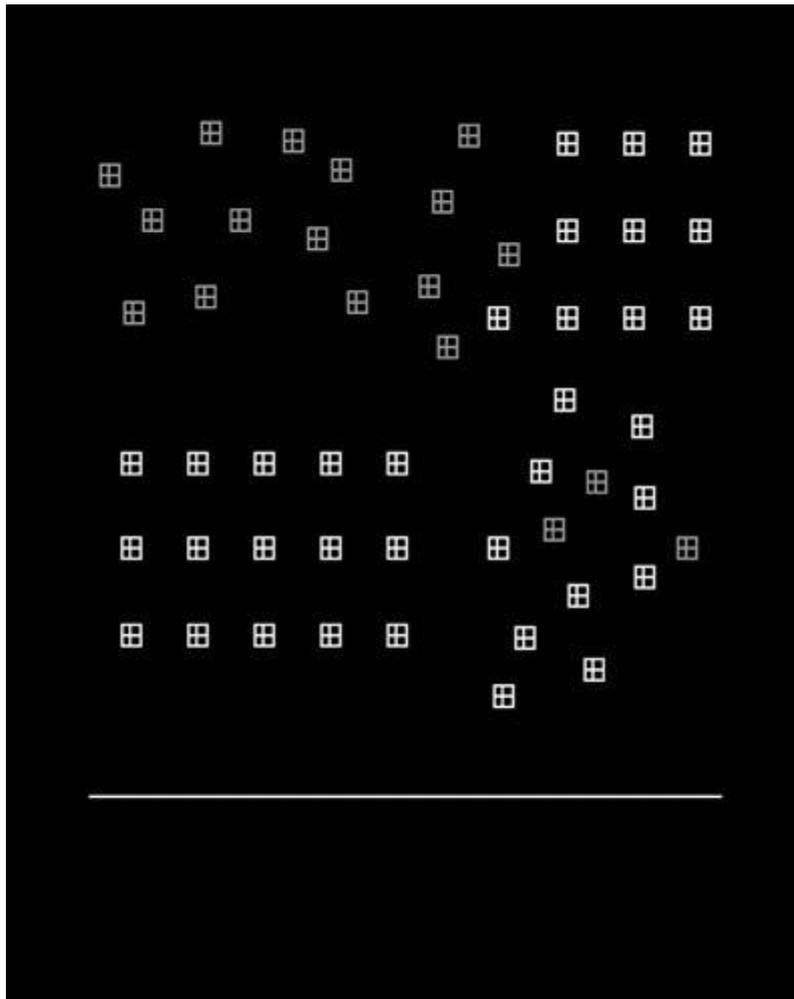


<합치고 나누고 반복하고...'픽셀'의 진화>

장하나 기자

2014-07-10 13:01



Hong Seung-Hye *Organic Geometry* 2014 inkjet print40x40cm_black. 국제갤러리 제공.

국제갤러리, 10일부터 홍승혜 개인전 열어

"돌이켜 보면, 나는 늘 돌이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과거는 주어졌고 미래는 한없이 불확실하다."

작가 홍승혜(55)는 스스로를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추측보다 과거에 대한 시선이 많다"는 게 작가의 말이다.

10일부터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홍승혜의 개인전 '회상'(回想)은 그런 작가가 1997년부터 시작한 '유기적 기하학' 프로젝트의 과거 행적을 돌이켜보는 전시다. 일종의 회고전인 셈이다.

작가는 컴퓨터 포토샵을 이용해 작업한다.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인 픽셀을 나열하고 새로 조합하고 분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식이다.

당초 회화를 전공했던 작가는 물감으로 그릴 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방황하다 조형 자체의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최근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컴퓨터 그림판에서 색깔을 클릭하면서 놀다가 이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형태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작가가 유기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을 부여한 픽셀들은 평면과 입체를 넘나들며 창틀이나 탑, 계단, 집 등의 이미지로 '증식'되고 진화한다.

이번 전시에는 "시공간의 레이어를 넘고, 분절과 결합을 거듭하고, 그리드의 안과 밖을 넘나들고, 음악적 질서를 수용하며, 끊임없는 프레임을 갱신해왔던" 과거의 작업을 다양한 변형을 거쳐 선보인다.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 작품은 '회상'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전부 흑백으로 제작했다.

1997년 초기 컴퓨터 드로잉에 기초한 실크스크린 작업은 잉크젯 프린트로, 2004년 벽화 '회상'은 알루미늄 패널로, 2008년 '온 앤 오프'(On & Off) 나무 조각 작품은 무채색 철제로 재현하는 등 작품은 평면과 입체, 재료를 넘나들며 진화한다.

작가는 1990년대 후반 사용했던 원형 프레임을 아예 전시장 벽에 구현해 전시장 안팎을 연결하고, 2000년에 제작된 타일로 벤치를 만들어 설치하기도 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관대한 편이에요. 스스로를 용서도 잘하고 제 자신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는 편이죠. 그러다보니 조형에서도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다양하고 이질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성격이 작품에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작가가 지난 10여년간 제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6편에서 색을 빼 흑백으로 전환하고 한데 묶은 영상 설치 작업 '6성 리체르카레'도 인상적이다.

바흐의 모음곡 '음악의 헌정'이 원전으로 독립성 강한 2개 이상의 멜로디를 결합, 대결시키는 대위법을 기초로 한 푸가를 작품에 재적용했다.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보듯 서로 다른 크기의 픽셀이 차곡차곡 쌓이고 흩어지고 움직이는 6개의 영상과 서로 다른 음악 6곡이 충돌하면서도 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전시는 8월 17일까지.



UR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7/09/0200000000AKR20140709080300005.HTML?from=search>

\